

한전, 배전기자재 연간균등발주 '움직임'

경영평가서 순위제 빠져 균등발주체계 구축 '탄력' 한전, "업계 의견 대폭 수렴해 균등발주 앞당길 것"

한전의 배전기자재 발주 방식이 연간균등발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내부에서 경영평가 방침 변화·미준공자재 환입 등 구매 발주에 영향을 끼치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간 한전을 비롯해 업계 내·외부에서는 연간균등발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공사시점에 따라 특정 기간에 집중될 수 있는 물량을 분산함으로써 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한전 또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재 균등발주 방침이 실제로 구현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일차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예산 집행의 변동폭이 컸고, 공사 시점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 예측 물량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던 탓이다.

올해 1사분기기를 기점으로 이 같은 대내외적인 구매 발주 여건에도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개별 사업소에 적용되던 내부 경영

평가 항목에서 순위제가 빠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경영평가에서는 사업소 순위제가 적용됨에 따라 각 사업소가 경쟁적으로 기본달성률을 초과해 구매 발주를 내는 문제가 있었다. 연말·연초에 일감 부족에 시달리던 업계에선 반색할 만한 일이었지만, 아마저도 특정 품목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잦아 반응에는 온도차가 있던 게 사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였던 순위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소에서는 분기별로 34~35%대의 정해진 달성률만 충족시키면 된다. 사업소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남은 물량은 분기별로 나눠 발주되기 때문에 균등발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근래 들어 배전기자재 부문의 미준공자재가 일제 점검에 들어간 점도 결과적으로는 균등발주 본격화에 기여할 것이라ں 시각도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물량 감소폭은 크지 않기에 미준공자재 해소

후 남은 물량이 순차적으로 발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선 균등발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연간 균등발주는 한전은 물론, 업체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기반인 만큼 올해 균등발주체계가 정착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발주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물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분기별로 적정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식이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투자비 조 기집행 목표는 63.2%로 전년 대비 0.8%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5월부터 남은 물량이 순차적으로 발주되는 가운데 내부 방침 변화에 자체 노력까지 결합되면 균등발주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광국 기자 kimgg@

한국안전인증, 프랑스 인증기관 INERIS와 기술 교류

국내 방폭 관련 제조업체 수출 활로 모색·정보 공유

한국안전인증이 프랑스 정부기관인 INERIS와 방폭분야 기술 교류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정은 프랑스 방폭 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하는 국내 방폭 관련 제조업체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

다. 한국안전인증 관계자는 "프랑스 인증기관인 INERIS와 방폭 분야에 대한 기술 공유는 물론 인력 교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제품온반·성능평가·결과확보

김승교 기자 kimsk@

융, 고객편의·보안 강화 최첨단 스마트 호텔 솔루션 출시

복도 스위치 유닛·호텔 카드키 스위치 등 실용성 우수 세계 최대 독일 'light+building' 전시회서도 신제품 호평

스마트 빌딩 제어 전문업체인 융코리아 일렉트릭(이하 융)이 고객편의와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최첨단 스마트호텔 솔루션과 전용 제품군을 출시했다.

신제품 가운데 호텔 객실 통로에 설치하는 복도 스위치 유닛은 기존의 세련된 LS 클래식 디자인 제품에 미래지향적 기술을 추가로 적용한 아이템이다.

호텔 게스트와 직원들 사이에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고객이 원할 때마다 스위치의 LED조명이 'Do not disturb(방해 금지)' 혹은 'Make up room(청소 요청)' 중 하나로 켜져 외부에 표시된다. 직원 혹은 외부인이 복도의 벨 스위치를 눌러 객실 내부의 투숙객에게 입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융의 호텔 카드 리더기는 다른 스위치·전열설비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내에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

융의 호텔 카드키 스위치도 실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스위치 센서에 호텔 카드키를 삽입하면 조명·환기·냉난방 등의 회로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객실 내부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스위치도 한층 기능이 강화됐다.

방 안의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연출 모드로 결합할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이 새겨진 스위치 버튼들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스위치에 적용할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고안해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다.

융은 지난 1912년 설립됐으며, 스위치 등 전기설비 디자인 제품과 첨단 KNX 시스템을 전문으로 다루는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업체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light+building' 전시회에도 참가해 다양한 디자인 제품과 최신 솔루션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시제품 가운데 'LS 1912 스위치'는 1910년대의 레트로한 감각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토글 스위치로, 클래식한 LS라인의 스위치커버 중앙부에 메탈 스위치를 별도로 추가해 강렬한 포인트를 준 새로운 타입의 스위치다. 특히 융의 창립연도인

1912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특별 아이템이다.

스마트 비쥬(Smart Visu) 서버와 스마트 컨트롤5(Smart Control 5)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홈·스마트오피스의 자동제어 시스템을 보다 직관적으로 구현한 신개념 시각화 솔루션이다.

스마트폰·태블릿 원격 제어, 자유로운 환경설정 커스터마이징, 필립스 휴(Hue)와 같은 타사의 스마트 조명과의 시스템 호환 등 기존의 편리한 기능에 더해 ▲대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온도·환기·채광 등 실내 상태를 조절하는 아스트로 기능 ▲스케줄 예약으로 블라인드·조명 등을 제어해 부재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강화용 프리센스 기능 등 혁신적인 기능들이 대거 추가됐다.

이외에도 조명과 전원장치를 한데 결합한 획기적인 인테리어 조명 기구 'Plug & Light'와 기존의 조명·블라인드에도 쉽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 각종 실내 전기설비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LB(Light+Blind)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융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신제품들이다.

윤정일 기자

현대일렉트릭, 북미 시장 확대 '본격화'

美 변압기 법인에 350억원 투자 계획, 공장 스마트화 추진

2021년 매출 2억불 목표

현대일렉트릭(대표 주영걸)이 미국 현지 변압기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북미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법인인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이하 '앨라배마 법인')'의 지분 100%를 309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현대일렉트릭은 향후 총 350억원을 투자해 이 법인의 생산공장을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트레이닝센터를 신축하고, 생산 공정 자동화와 실시간 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 능력을 60% 이상 늘려 2021년까지 매출 2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앨라배마 법인은 지난해 매출 1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앨라배마 법인은 2010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에 설립한 생산공장이다. 현재 3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만 4000MVA(메가볼트암페어)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대용량 변압기 8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미국 앨라배마 생산법인을 통해 최근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글로벌 전력시장 조사기관인 골든리포트(Golden Report)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미국(12.71%)은 중국(34.5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변압기 시장이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현지 인력을 확충해 영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변압기 뿐만 아니라 고압차단기, 회전기, 배전기기, 에너지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유럽 불가리아 법인을 비롯해, 중국 양중법인, 미국 앨라배마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전 세계 주요 전력시장에 총 3개의 생산 자회사를 보유하게 됐다.

송세준 기자 21ssj@



현대일렉트릭이 인수한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공장 전경.

이태리 명품가구 '나투찌'와 함께 IoT 거실 꾸민다

LG전자, '밀라노 디자인 위크' 참가 스마트홈 구축

LG전자가 60년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나투찌(NATUZZI)'와 함께 IoT 거실을 꾸민다.

LG전자와 '나투찌'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o Design Week)'에서 스마트홈을 선보인다.

이 공간은 '나투찌' 가구와 'LG 시그니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나투찌' 전시관은 '나투찌'의 '콜로세오(Colosseo)' 소파를 비롯해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LG 씽

큐 스피커, 스마트 조명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IoT 거실로 꾸며질 예정이다.

IoT 거실은 방문객이 '나투찌' 소파에 앉아 LG 씽큐 스피커에 "TV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자동으로 켜지고 소파의 등받이가 뒤로 눕히면서 조명 밝기가 어두워지는 등 주변 환경이 TV 시청에 최적화된다.

사용자가 LG 씽큐 스피커에 "낮잠 자고 싶어"라고 말하면, 소파와 조명이 스스로 취침 모드로 바뀌고 LG 시그니처 가습공기청정기가 켜진다.

향후 LG전자와 '나투찌'는 양사

의 가전-가구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IoT 스마트홈 기술 발굴, 공동 마케팅 등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나투찌'의 최고마케팅커뮤니케이션책임자인 파스칼레 주니어 나투찌(Pasquale Junior Natuzzi)는 "거실에 놓인 다른 가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신개념 소파를 개발하고자 했다"며 "침실부터 거실까지 모든 생활공간에 가구를 활용한 IoT 환경을 구현하는 데에 LG 전자는 탁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LG전자 이탈리아그리스법인장 김성수 사무는 "가전과 가구는 실생활에서 항상 함께하는 파트너"라며 "가전과 가구를 대표하는 양사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진정한 고객 가치를 느끼는 스마트홈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일 기자 yunji@

전력기기조합, 베트남 전력시장 '출사표'

현지 아시아네트웍스홀딩스와 MOU...현지 진출 기반 다져

전력기기조합이 아시아네트웍스홀딩스와 베트남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 유병언)은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아시아네트웍스홀딩스(대표이사 이규상)와 베트남 전력시장 내 국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네트웍스홀딩스는 베트남에 5개 현지법인을 가

지고 전력 기자재 공급·설계·시공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전력기기 전문 업체다.

현재 베트남 전력시장은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지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국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번 MOU는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놓은 것으로, 향후 국내 기업의 베트남 전력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병언 전력기기조합 이사장은 "베트남은 개별 업체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 접근이 쉬운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베트남 전력시장 진출 실패 등의 사례를 경험으로 삼아, 이번 MOU가 실질적으로 조합 회원사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토록 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국 기자



11일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베트남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유병언 전력기기조합 이사장(왼쪽)과 이규상 아시아네트웍스홀딩스 대표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융의 스마트 호텔 솔루션.